

한국무속학 제27집(2013)

연평도 풍어굿의 구성과 장면화 방식*

한은선**

[요약]

연평도는 1970년대 초반까지 조기잡이로 유명했던 곳이다. 하지만 어로저지선 남하와 선박의 대형화로 월동장에서 조기를 남획하게 되면서 연평근해의 조기잡이는 중단되었다. 마을굿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조기잡이가 중단되자 마을굿 역시 약화되었다. 연평 근해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조기잡이의 대안으로 꽃게잡이가 이루어졌으며, 2008년 꽃게의 풍어로 인해 중단되었던 마을굿이 다시 연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 김금화 만신이 주재한 연평도 풍어굿을 장면단위로 분석함으로써 과거 연평도에서 연행되었던 대동굿의 파편을 찾고자 하였다.

연평도 풍어굿은 당신과 산신을 청배하여 놀리는 전반부와 제신(諸臣)을 청배하여 놀리는 중반부, 그리고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후반부로 구성되어있다. 풍어굿의 장면을 분석한 결과,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잡은)만세받이와 긴노래의 기능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잡은)만세받이는 굿거리의 도입부분에서 불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평도 풍어굿을 통해 (잡은)만세받이가 드물게 굿의 중간에서도 불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만세받이에서 청배한 신이 잘 좌정했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하는 긴노래는 연행상황에 따라 청배 기능뿐만 아니라 기원과 송신의 기능까지 겸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굿을 주재하는 무당은 장면의 확장과 축소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게 굿을 신축적으로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연행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굿을 짜나감으로써 굿의 현장성을 담아내려 한다. 연평도 풍어굿에서 무당은 사회적 변화와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을 장면의 확대와 축소를 통해 굿에 반영하였다. 장면의 확대는 임경업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1-A00007).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연구원

장군에 대한 반복된 언급과 꽃게 풍어의 기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면의 축소
는 풍어 기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주제어 : 풍어굿, 연평도, 마을굿, 장면화 방식, 긴노래, 만세받이

I. 머리말

연평면은 인천에서 서북방 12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북한과는 불과 3.4km 거리로 휴전선을 접경하고 있다. 이 지역은 연평도와 소연평도 2개의 유인도와 30여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군도(群島)이다. 연평도에서는 조기 잡는 방법을 알려준 임경업장군을 ‘충민사(忠愍祠)’에 모시고 있으며, 임경업장군을 당에 모시게 된 이유와 관련한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연평도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조기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대동굿을 했는데, 대동굿은 매년 11월에 택일하여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 매년 연행되던 대동굿은 8·15 광복이후 2~3년에 한번으로 점점 뜸하게 이루어졌으며, 기간도 일주일에서 2~3일로 줄어들었다. 과거, 연평도 주민들은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조기와 관련된 일을 했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조기잡이가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살림이 힘들어졌고 마을의례 역시 약화되었으며, 명맥이나마 유지되고 있던 마을의례는 경제적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아예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풍어제를 다시 지내게 되었는데, 그 해에 꽃게가 많이 잡혔다. 이를 계기로 연평주민들은 매년 꽃게 어장이 형성될 시기인 2월 보름 즈음에 풍어제를 지내게 되었다.¹⁾ 하지만 이후 꽃게 어획량이 저조해지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마을제의가 중단되었고, 2007년 꽃게가 많이 잡히면서 2008년부터 다시 지내게 되었다. 연평도의 주 어획어종이 조기에서 꽃게로 변화하면서 마을제의에도 변화가 생겼다. 가장 먼저, 제의 명칭이 ‘대동굿’에서 ‘풍어굿’으로 변화였다. 그리고 제의 목적도 조기

1) 인천광역시, 『문화유적 분포지도』(인천광역시, 2007), 156쪽.

풍어의 기원에서 꽃게 풍어의 기원으로 바뀌었으며, 제의 시기 역시 음력 11월에서 2월 보름으로, 그리고 현재는 꽃게 출어 전날로 바뀌었다.

2008년에 이루어진 풍어굿은 마을의례가 중단된 지 6년 만에 다시 지내게 된 것으로, 김금화만신 일행을 초청하여 큰 규모로 진행되었다. 5년 동안 잡히지 않던 꽃게가 2007년에 많이 잡혔는데, 어민들은 그 이유가 임정업장군 사당을 복원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풍어굿 예산은 1,500만 원 정도였으며, 관의 지원 없이 전액 선주들이 각출했다.

2008년에는 풍어굿에 들어간 비용을 관의 도움 없이 선주들이 추렴하였지만 2009년부터 관의 지원을 받았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관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1,000만원²⁾을 지원받았다. 2011년 4월 11일에 이루어진 풍어굿은 관의 지원뿐만 아니라 경인신문사의 후원을 받아 큰 규모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한 것이다. 때문에 명칭도 ‘풍어굿’이 아닌 ‘서해5도 평화풍어기원제’로 바뀌었으며, 무속인 뿐만 아니라 4대 종단(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이 모두 함께하였다. 많은 예산을 들였으며 500여명 가까이 참석한 2011년 ‘서해5도 평화풍어기원제’는 끝난 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마을제외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이때는 연평 어민들이 꽃게잡이를 코앞에 두고 있어 조업준비에 바쁜 시기였으며, 연평도 포격 피해와 관련된 보상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축제 마당에 선뜻 나서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연평도의 마을제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날 기원제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만 참석했고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둘러싸고 기원제가 진행되는 사이 시의원과 면장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졌다.³⁾ 이런 이유 때문인지 2009년부터 풍어제에 지원되던 지원금은 2011년 ‘서해5도 평화풍어기원제’ 이후 중단되었다. 2012년에는 출어 하루 전날인 3월 30일에 풍어제를 지냈

2) 자료 : 웅진군 연평면.

3) 2001년 4월 11일 경인일보.

지만 관으로부터 지원되던 지원금은 없었다. 연평면에서는 앞으로도 풍어제와 관련된 지원금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관의 지원이 중단되자 풍어제는 다시 명맥만 이을 정도로 간소하게 이루어졌다.

조기가 사라지면서 왕성했던 연평도 마을굿 역시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선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연행된 풍어굿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연평도는 무당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 만신이 주재하는 마을굿을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의 내부에 어떤 신을 모셨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풍어굿에서 연행된 당제사에 대한 분석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에 이루어진 풍어굿의 구성과 장면화 방식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평도 풍어굿의 특징을 밝히고자한다. 또한 이러한 기초 작업을 토대로 향후 황해도굿의 연행방식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II. 연평도 풍어굿의 구성

2008년 연평도 풍어굿은 김금화 만신을 경관만신으로 하여 연행되었다. 2008년에 연행되었던 풍어굿은 과거에 연평도에서 이루어졌던 대동굿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과거의 대동굿과 2008년 풍어굿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낭내림의 부재이다. 대동굿의 주된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서낭내림’에 있다. 대동굿을 주재하는 무녀가 마을에 거주한 당골무녀였을 경우 대동굿의 목적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굿을 짜나가겠지만 외부에서 초청한 무녀에게 그러한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마을굿의 전체적인 흐름은 차이가 있겠지만 무당굿의 구성과

4) ‘장면화 방식’은 굿거리를 장면별로 구분하여 무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만신이 주재하는 황해도굿의 경우 행위의 변화에 따라 장면화되고, 전라도에서 연행되는 셋김굿의 경우 장단 단위로 장면화된다. ‘장면화 방식’은 굿의 구성과 연행방식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 이경엽(이경엽, 『영암셋김굿의 구성과 장면화 방식』, 『전남 영암셋김굿』 II(국립문화재연구소, 2012)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절차는 과거의 대동굿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2008년에 연행된 풍어굿을 통해 과거 대동굿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연평도 풍어굿 연행과정 (2008년 3월 11일, 양력)

순서	구성	기능	연행절차	연행장소	주무
1	전반부	아뢰/정화	당제사	임경업장군 사당 안	김금화
2		당신 청배	당맞이	임경업장군 사당 앞	
3			세경돌기	사당에서굿청까지	김금화 만신 일행
4		굿당 정화	신청올림	마을회관 안	김경화
5		산신 청배	상산맞이	굿청(당섬 선착장)	김금화
6			기념식		기관장 외
7	중반부	굿당 정화	초부정·초감홍·영정물림		지광선
8		제신(諸神) 청배	칠성제석굿		김금화
9			타살군웅굿		조정자
10			성주굿		이진하
11			소대감놀이		이순애
12			성수거리		김혜경
13			익은타살		이옥자
14			면산장군거리		박정해
15			한양 대감놀이		김동호
16			이북 대감놀이		이옥자
17			서낭목신거리		이지녀
18			조상굿		김금화
19			영산할이밤·영산할맘		김금화, 김경화
20		송신	장발굿		김금화
21	후반부	잡귀잡신 풀어먹이기	마당굿	굿청 옆	
22			강변용신굿	강변 가	지광선

연평도 풍어굿은 기념식과 한양 대감놀이를 제외한 20거리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당제사’는 사당 내부에서 연행되었다. 당제사는 임경업장군에게 풍어굿이 이루어짐을 아뢰는 동시에 신을 맞이하기 전에 당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맞이’는 사당에 좌정한 임경업장군을 청배하여 놀리는 거리이다. 이후 청배한 임경업장군을 모시고 마을을 돌며 ‘세경돌기’를 한다. ‘신청올림’은 굿을 하기 전에 악기를 울려서 주당 잡귀를 쫓아내고 굿청을 정화⁵⁾시키는 거리로 마을회관 안에서 악사나 조무 없이 주무 혼자 진행한다. ‘상산맞이’는 굿을 하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의 산신과 마을부군님을 모시는 거리⁶⁾로 산신을 청배하여 놀린다.

‘초부정·초감홍’은 굿당의 부정을 씻어내어 굿당을 정화시키고 ‘영정물림’은 모든 영정을 대접하고 질병, 근심, 액운을 걷어내는 굿⁷⁾이다. ‘초부정·초감홍·영정물림’은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한 무녀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어서 진행되었다. ‘초부정·초감홍’은 하나의 거리로, ‘영정물림’은 별개로 연행되었는데, 잦은 만세받이를 이용해 ‘초부정·초감홍’과 ‘영정물림’ 사이에 경계를 두었다. 이때 이루어진 잦은 만세받이의 앞부분은 ‘초부정·초감홍’의 마지막 부분으로 ‘날만세받이’라 할 수 있으며, 뒷부분은 ‘영정물림’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잦은 만세받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황해도굿은 각각의 거리에서 한 신격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여러 신을 함께 청배하여 놀린다. 하지만 각각의 굿거리에서 모시고자하는 대표적인 신격은 존재한다. ‘칠성제석굿’에서는 칠성신과 제석신을, ‘군웅타살’에서는 군웅신을, ‘성주굿’에서는 집안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성주신을, ‘소대감놀이’에서는 재물을 관장하는 소대감을, ‘성수거리’에서는 만신이 모신 신을, ‘익은타살’에서는 군웅신을, ‘먼산장군거리’에서는 명산에 깃들여있는 장군신을, ‘이북대감놀이’에서는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신을, ‘서낭목신거리’에서는 서낭신과 목신을, ‘조상굿’에서는 굿을 의뢰한 재가집의 조상신을, ‘영산할아밤·영산할맘’

5) 김금화, 『김금화의 무가집 - 거트나파에 만신 회나백성의 노래』(문음사, 1995), 41쪽.

6) 위의 책, 324쪽.

7) 위의 책, 57~66쪽.

에서는 만신이 된 공주님을 모시고 다녔던 영산을 청배하여 놀린다. ‘장발굿’은 마을의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며 장발을 들고 놀리면서 장발에 좌정했던 신령님들을 전송하는 굿⁸⁾이다. ‘마당굿’은 해산원신, 개량직사, 자살귀 등 여러 잡귀잡신을 풀어먹여 보내는 굿이다. ‘강변용신굿’은 수사한 영혼을 위로하는 굿으로 그 의미와 역할은 ‘마당굿’과 비슷하다.

연평도 풍어굿은 청배하는 신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당신과 산신을 청배하여 놀리는 전반부와 제신(諸神)을 청배하여 놀리는 중반부, 그리고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다. 거리의 기능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굿당 정화-당신 청배-굿당 정화-산신 청배-굿당 정화-제신 청배-송신-잡귀잡신 풀어먹이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화-청배-정화-청배-정화-청배-송신-잡귀잡신 풀어먹이기’로 진행된다. 이를 조금 더 큰 덩어리로 묶으면, 연평도 풍어굿은 ‘정화-청배-송신-잡귀잡신 풀어먹이기’ 4 단계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을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의 단계를 거치는데, 당신(堂神)과 산신의 청배를 위한 정화의례는 각각 별개로 이루어진 반면, 제신(諸神) 청배를 위한 정화는 별개로 연행되지 않고 하나의 묶음으로 연속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잡귀잡신의 경우 별도의 정화의례 없이 진행되었다.

〈표 2〉 김금화 만신 주재 마을굿 연행 절차

순 서	구 성	대동굿 ⁹⁾	연평도 풍어굿 ¹⁰⁾
1	전반부	당제사	당제사
2		신청울리	당맞이
3		당산맞이	세경돌기
4		세경돌기	신청울림
5		문잡아들음	상산맞이

8) 위의 책, 302쪽.

9) 위의 책, 265~311쪽. 이 자료집에서는 ‘신청울림’을 대동굿의 시작으로 기록 하였으나, ‘신청울림’ 전에 당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당제사’를 대동굿의 시작으로 본다.

10) 2008년 3월 11일 자료. ‘복잔내림’, ‘무감서기’, ‘배치기소리’ 등은 독립된 굿거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순서에서 제외시켰다.

6	중반부	초부정굿	초부정·초감홍·영정물림
7		초감홍굿	칠성제석굿
8		영정물림	타살군웅굿
9		칠성제석굿	성주굿
10		성주굿	소대감놀이
11		소얼음굿	성수거리
12		도산말명 방아찢굿	익은타살
13		사냥굿	면산장군거리
14		성수거리	이북 대감놀이
15		타살군웅굿	서낭목신거리
16		대감놀이	조상굿
17		뱃기내림	영산할아밤·영산할맴
18		조상굿	장발굿
19		서낭목신굿	마당굿
20		장발굿	강변용신굿
21	후반부	영산대감·영산할아밤·영산할맴굿	
22		벌대동굿	
23		마당굿	
24		강변 수살 용신 송신굿	

위의 표에서 주목할 거리는, 굿의 전반부와 중반부의 경계가 되는 ‘초부정·초감홍’과 중반부와 후반부의 경계가 되는 ‘장발굿’이다. ‘초부정·초감홍’을 기준으로 모시는 신의 성격이 달라진다. ‘초부정·초감홍’은 굿청을 정화시키는 기능과 함께 청배하는 신의 신격을 경계 짓는 기능을 한다. 공연이 아닌 현장에서 진행되는 황해도 만신들의 마을굿에서는 기념식이 반드시 ‘초부정·초감홍’ 이전에 진행되는데, 이는 ‘초부정·초감홍’의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초부정·초감홍’과 ‘영정물림’을 통해 굿청을 정화시킨 후 본격적으로 제신들을 청배하여 놀린다. ‘초부정·초감홍’ 이전에는 당과 산에 좌정하여 마을을 지켜주는 신격을 청배하고, ‘초부정·초감홍’ 이후에는 여러 제신과 조상신, 가택신 등을 청배한다. 당이 있는 마을에서는 ‘초부정·초감홍’ 이전에 당신과 산

신을 청배하고, 당이 없는 마을에서는 산신만을 청배한다. ‘초부정’, ‘초감홍’, ‘영정물림’은 연행상황에 따라 각각 별개의 굿거리로 연행되거나 하나의 굿거리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진행되기도 한다.

마을굿에서 ‘초부정·초감홍’과 함께 주목하여야 할 거리는 ‘장발굿’이다. 기존 자료를 살펴보면, 장발굿은 김금화 만신이 연행하는 여러 굿 중 개인굿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마을단위의 굿에서만 발견된다. 마을굿에서는 여러 신격이 등장한다. 신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청배하여 좌정시켜 놀리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불러서 풀어먹이는 존재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신들을 살펴봤을 때, 당신부터 영산까지는 청배하여 굿당에 좌정시키는 대상 신격이며, 마당굿과 강변용신굿에서의 해산원신, 개량칙사, 자살귀, 수사자 등은 잡귀잡신으로 청배의 대상이 아닌 불러서 풀어먹이는 존재이다. 중반부 마지막에 장발굿을 통해 이제까지 장발에 좌정했던 신들을 정중히 보내는 의식을 하는데, 장발굿은 청배하여 좌정시킨 상위신과 잡귀잡신을 경계 짓는 굿거리라 할 수 있다. 다만, 영산은 배연신굿과 풍어제를 할 때만 맞이로 띄우는¹¹⁾ 신으로 제신(諸神)들과 함께 좌정시키는 신격임에도 불구하고 장발굿 이후에 연행하기도 하여, 신의 위계에서 영산의 위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Ⅲ. 연평도 무당굿의 장면화와 사설구성 방식

연평도 무당굿은 연행방식에 따라, (1)악사의 반주 없이 진행하는 방식과 (2)악사의 장단에 맞추어 노래와 춤으로 진행되는 방식, (3)장구잽이와 만신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연극적으로 진행되는 방식, 그리고 (4)장구장단만으로 굿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1) 김금화, 앞의 책(1995), 405쪽.

- (1) 당제사, 신청올림
- (2) 당맞이, 상산맞이, 초부정 · 초감흥 · 영정물림, 칠성제석굿, 타살군웅굿, 성주굿, 소대감놀이, 성수거리, 익은타살, 먼산장군거리, 이북대감놀이, 서낭목신거리, 조상굿, 장발굿
- (3) 영산할아밤 · 영산할맘, 마당굿
- (4) 강변용신굿

(1) 약사의 반주 없이 만신 혼자 진행하는 거리는 ‘당제사’와 ‘신청올림’이다. 당제사는 임경업장군 사당 내에서, 신청올림은 마을회관에서 연행되었다. (2) 약사의 장단에 맞추어 노래와 춤으로 진행하는 거리는 ‘당맞이, 상산맞이, 초부정 · 초감흥 · 영정물림, 칠성제석굿, 타살군웅굿, 성주굿, 소대감, 성수거리, 익은타살, 먼산장군거리, 이북대감놀이, 서낭목신거리, 조상굿, 장발굿, 강변용신굿’이다.¹²⁾ (3) 장구잡이와 만신이 재답을 주고받으며 연극적으로 진행하는 거리는 ‘영산할아밤 · 영산할맘’과 ‘마당굿’이며, 학계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굿을 ‘무당굿놀이’라 한다. ‘영산할아밤 · 영산할맘’은 굿청에서, ‘마당굿’은 굿청 옆에서 연행되었다. (4) 장구장단만으로 굿을 진행하는 거리는 ‘강변용신굿’으로 갯변가에서 장구잡이와 만신 둘이 간단하게 연행하였다. ‘당맞이’는 임경업장군 사당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상산맞이’부터 ‘장발굿’은 굿청에서, ‘강변용신굿’은 갯변가에서 연행되었다.

12) 원래 ‘칠성제석굿, 소대감놀이, 성수거리, 이북대감놀이’에서는 굿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장구잡이와 만신의 재답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위의 네 거리에서 연행되는 재답은 연행상황에 따라 삽입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성수거리를 제외한 다른 거리에서는 재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수거리 역시 만신과 장구잡이 사이에 대화가 오고가는 하지만 그 내용이 재답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실제 연행현장에서 놀이적 요소를 발견하지 못한 네 거리 모두 (2)에 포함시켰다.

1. 약사의 반주 없이 진행되는 거리

약사와 조무 없이 만신 혼자 진행되는 거리는 굿청을 정화시키고 신에게 굿을 아뢰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 당제사¹³⁾

- A. 동쪽신 치성(당의 오른쪽)-㉠ 치성 드리는 시간과 장소 아뢴 ㉡ 동쪽신 청배 ㉢ 풍어제 아뢴 ㉣ 주민 대표 신에게 아뢰고 축원 ㉤ 풍어굿을 하는 이유 아뢴 ㉥ 풍어기원 ㉦ 경관만신 아뢴
- B. 서쪽신 치성(당의 왼쪽)-㉠ 서쪽신 청배 ㉡ 풍어제 아뢴 ㉢ 정성을 받아 달라 청 ㉣ 주민 대표 아뢰고 축원 ㉤ 풍어기원 ㉥ 경관만신 아뢴
- C-1. 임경업장군 치성(당의 중앙)-㉠ 시간과 장소 아뢴 ㉡ 풍어굿 아뢴 ㉢ 당에 모셨던 신 거론
- D. 공수-㉠ 이전의 모습대로 복원하지 않은 것을 질타 ㉡ 과거 당에 모셨던 신들을 거론하고 조상굿할 때 따로 모실 것을 당부 ㉢ 주민들 간 잡음에 대한 서운함 ㉣ 풍어굿을 하여 정성 드린 것에 감사 ㉤ 그동안 임경업장군에게 소원했던 것에 대한 서운함 ㉥ 축원
- C-2. 임경업장군 치성(당의 중앙)-㉠ 풍어제 대동굿 함을 아뢴 ㉡ 주민 대표 신에게 아뢰고 축원
- E. 음복
- F. 당밖신 치성-㉠ 당밖신 청배 ㉡ 풍어제 아뢴 ㉢ 풍어와 마을의 안녕 기원
- G. 헌식

당제사는 당맞이를 하기 전 당을 정화시키고 당에 좌정해있는 신들에게 풍어굿을

13) 알파벳은 큰 단위의 장면변화이고, ㉠㉡...는 각 장면의 사실 전개 상황을 표시한 기호이다.

아뢰는 거리로, ‘동쪽신 치성-서쪽신 치성-임경업장군 치성-음복-당밖신 치성’ 순으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신에게 치성을 드릴 때마다 상¹⁴⁾을 따로 준비하였다.

당제사의 장면화와 사설 구성의 분석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당에 모셔진 신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의 동쪽은 ‘칠성당·소당’으로, 거론된 신격은 ‘소태양, 소고양, 제석님, 소당애기, 소당제석님’ 등이다. 당의 서쪽에서는 사해용왕과 물애기씨 등 여러 용왕신이 거론되었다. 당의 중앙에서는 임경업장군과 임경업장군을 양쪽에서 모시는 장군마누라에게 치성을 드렸으며, 연평도 당을 새롭게 신축한 이후 처음 하는 굿이기 때문에 성주신과 지신도 함께 모셨다. 당밖 치성은 다른 곳에 비해 간단하게 진행되었는데, 목신서낭, 수살서낭, 대동서낭 등 서낭신이 거론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사당의 동쪽에는 제석신과 소당애기가 좌정해있고, 서쪽에는 용왕신, 중앙에는 임경업장군, 그리고 당 밖에는 서낭신이 좌정해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당제사의 연행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쪽신과 서쪽신, 그리고 당밖신에 드리는 치성은 말로, 임경업장군에게 드리는 치성은 가볍게 읊조리듯 음영조로 진행되었다. 치성의 사설 전개 방식을 살펴보면, ‘시간과 장소 아뢰기-해당 신 청배-풍어굿 아뢰-주민 대표 아뢰고 축원-풍어기원-경관만신 아뢰’으로 정리된다. 당제사는 의례를 연행하는 시간과 장소를 신에게 아뢰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굿을 연행하는 시간과 장소를 신에게 고하는 공식적 표현¹⁵⁾이 사용된다. 공식적표현이란,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규칙적으로 등장하는 관용어구(formula)¹⁶⁾를 말한다. 이 공식적 표현단락은 무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이후 모든 거리의 도입부분에서 사용되었다.

14) 상에는 쌀, 술 한 잔, 향, 초 2개, 정한수를 진설하였다.

15) “천하국 삼에삼천 지하궁에 이십팔수 돌아오는 일반국 저가는 화산국 해밑에는 기말씨 달 밑에 호정씨 별 밑에 이성기씨 서자동궁은 새별상 지정은 나라님의 지정 권레는 부군님의 권레. 거주 건명은 웅진군입니다. 경기도 웅진군 연평읍니다. 해주님은 무자년입니다. 어업이익을 다 상달 이월 영등입니다. 금일은 초나훈날입니다.”

16) “a group of words Which is regularly employed under the same metrical conditions to express a given essential idea”(Albert Lord, 『The Singer of Tales』(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30. 이경엽, 앞의 책(2012), 247쪽 재인용).

2) 신청올림

A. 진설

B. 치성 - ㉠ 풍어제 아뢰 ㉡ 신 청배 ㉢ 주민대표 아뢰고 축원 ㉣ 풍어 기원
㉤ 만신 일행 안전 기원

C. 반배

D. 헌식

신청올림은 굿을 하기 전에 잡귀를 쫓아내고 굿청을 정화시키는 굿이다. 다른 굿에서 신청올림은 장구 장단에 맞춰서 진행되지만,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악사나 조무 없이 만신 혼자 마을회관 안에서 연행되었다. 치성은 아무 탈 없이 굿을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치성이 끝나고 상을 향해 반배한 후 상에 차려진 술을 밖에 버리는 것으로 신청올림은 마무리 되었다. 신청올림에서 거론된 신은 ‘당도당 부군님, 용신님, 지신’ 등이다.

2. 노래와 춤으로 진행되는 거리

노래와 춤으로 진행되는 거리는 모두 14거리이며, 악사의 장단에 맞추어 무가를 구연하고 춤을 추어 신을 청배하고 놀린다.

1) 당맞이

A. 진설

B. 선주들 재배

C. 만세받이 - ㉠ 서두 ㉡ 임경업장군 청배 ㉢ 장소와 일시 아뢰 ㉣ 주민 대표
아뢰 ㉤ 주민들의 정성 아뢰 ㉥ 산신 청배 ㉦ 풍어와 안녕 기원

D. 긴노래

- E. 공수¹⁷⁾ - ㉠ 연평도에서 굿을 하는 것에 대한 감격스러움 표현 ㉡ 연평도의 현실을 안타까워 함 ㉢ 축원
- F. 거풍 - 향로
- G. 긴노래 - ㉠ 다른 신 청배
- H. 춤
- I. 공수
- J. 복잔내림 - ㉠ 복잔을 주며 명·복 빌어주기 ㉡ 풍어 기원 ㉢ 복주기
- K. 춤
- L. 경사타령 - 고사반 넘기기
- M. 쌀산
- N. 장군기에 술 붓기
- O. 배치기 소리

당맞이(당산맞이)는 마을의 당에 모시고 있는 신을 굿청으로 모시고 가기 위한 굿거리이다. 당맞이는 사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당 문 앞에 제물을 진설한 후 굿을 진행하였다. 당맞이의 장면 변화를 살펴보면 이 거리에서는 두 부류의 신을 별개로 청하여 놀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F까지는 임경업장군과 산신을 청배하여 놀리는 부분이고, G~I까지는 부군님과 천지신명님을 청배하여 놀리는 부분이다. C에서 임경업장군과 산신 등을 청배하고, D에서는 C에서 모셨던 제신(諸神)들을 일일이 호명하여 확인한다. 공수(E)를 통해 신의 말을 전달한 후 모셨던 신들을 놀린다(F). 긴노래(G)를 통해 ‘삼도강 부군님, 천지신명님들’을 청배하고 춤(H)으로 놀린 후 공수(I)를 준다. L은 신이 굿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M은 만신이 주민들의 재수를 보여주는 절차이다. 이후 장군기에 소주를 부으며(N) 굿을 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말을 하며 간단하게 끝냈다.

17) 공수에는 긴공수, 흘림공수, 서림공수, 허리공수가 있으나 실제 연행현장에서는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수’로 통칭하고자 한다.

2) 상산맞이

- A. 만세받이-㉠ 서두 ㉡ 장소와 일시 아뢴 ㉢ 청배, 풍어굿 아뢴 ㉣ 경관만
신 아뢴 ㉤ 풍어와 안녕 기원 ㉥ 마을 대표 소개 ㉦ 축원
- B. 긴노래
- C. 거풍
- D. 축원
- E. 긴노래
- F. 춤
- G. 공수-㉧ 풍어굿을 연행한 것에 고마움 표현 ㉨ 주민들이 한마음 되어 크
게 발전하길 기원
- H. 춤
- I. 복잔내림-㉩ 선주들에게 복잔을 주면서 풍어 기원
- J. 배치기 소리

상산맞이(상산부군맞이)는 마을의 수호신과 산신을 청배하여 놀리는 거리이다. 상산맞이의 전체적인 흐름은 청배와 축원으로 이루어져있다. A와 B를 통해 신을 청배한 후 C로 신을 놀린다. D~I까지는 인간을 위한 절차로 풍어와 복을 기원한다. 상산맞이에서는 긴노래가 두 차례 연행되었다. 일반적으로 긴노래는 만세받이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는 것으로 시를 읊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음영조로 연행한다. 만세받이에 이어서 부르는 긴노래는 만세받이에서 모셨던 여러 신들을 다시 호명하여 좌정하였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불려진다. 하지만 E의 경우처럼 만세받이 이후가 아닌 굿의 중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긴노래는 만세받이에서 청배했던 신 외에 다른 신을 청배하거나 신에게 원하는 바를 아뢰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3) 초부정 · 초감홍 · 영정물림

- A. 긴만세받이 - ㉠ 서두 ㉡ 일시 이뤄 ㉢ 장소 이뤄 ㉣ 풍어와 무병장수 기원
㉤ 곳곳에 좌정한 영부정 호명하여 청배
- B. 긴노래
- C. 제금던지기
- D. 긴노래
- E. 춤
- F. 공수 - ㉠ 풍어 기원 ㉡ 주민들의 무병장수 기원
- G. 신칼 들고 춤
- H. 기점
- I. 거풍 - 신칼 → 오방기 → 삼지창과 뚝대 → 신대 → 신복 → 무명과 배 → 조
상옷 → 대신발 순
- J. 긴노래 - 모셨던 신에게 술을 드리며
- K. 날만세받이 / 자진만세받이 - ㉠ 초부정 · 초감홍 송신 ㉡ 축원 ㉢ 영정 청
배 ㉣ 부정소지 올리기 ㉤ 질병과 액운 몰아내기
- L. 칼산 던지기
- M. 복잔내림
- N. 공수 - ㉠ 풍어제 날짜 이뤄 ㉡ 명과 복 빌어 줌
- O. 축원 - 주민들에게 복잔을 주며 축원
- P. 긴노래

이 거리는 작게는 ‘초부정 · 초감홍’, ‘영정물림’ 2개의 거리, 크게는 ‘초부정 · 초감홍’, ‘영정물림’, ‘복잔내림’ 3개의 거리로 나눌 수 있다. ‘초부정 · 초감홍’은 굿당의 부정을 씻어 정화한 후 신들을 좌정시키는 곳이며, ‘영정물림’은 영정을 대접하고 모든 부정한 것들을 걷어내는 곳이다. ‘복잔내림’은 말 그대로 재가집 가족들에게 술을 나누어 주어 명과 복을 빌어주는 거리이다. 보통 초부

정·초감홍, 영정물림, 복잔내림은 별개의 거리로 연행된다. 하지만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한 무녀에 의해 하나의 거리처럼 이어서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A~D는 청배와 좌정을 위한 절차이고, E~J는 신을 놀리는 절차이다. K에서 ‘초부정·초감홍’과 ‘영정물림’이 나뉜다. ㉗와 ㉘는 초부정·초감홍의 송신부분이고, ㉙~㉚는 영정물림의 청배와 오신에 해당한다. 황해도굿에서 만세받이는 ‘긴 만세받이, 만세받이, 잣은(날) 만세받이’로 구분된다. 이는 장단의 빠르기에 따른 구분인데, ‘긴 만세받이’는 조금 느린 3소박 4박자(10/8박자), ‘만세받이’는 보통빠르기의 혼소박 4박자(10/8박자), ‘잣은 만세받이(날만세받이)’는 조금 빠른 2소박 4박자(4/4박자)¹⁸⁾로 부른다. 2소박 4박자(4/4박자)의 빠른 장단의 만세받이는 굿의 시작부분에서 불러질 경우 ‘잣은(자진) 만세받이’라고 하며, 굿의 끝부분에 불러지면 ‘날만세받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잣은 만세받이’와 ‘날만세받이’는 각각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런데 이때 이루어진 만세받이(K)는 ‘잣은 만세받이’와 ‘날만세받이’가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졌다. 무가 사설을 살펴보면, 앞부분은 ‘초부정·초감홍’의 마지막 부분으로 ‘날만세받이’라 할 수 있으며, 뒷부분은 ‘영정물림’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잣은 만세받이’라 할 수 있다. 한 무녀에 의해 여러 거리가 연속적으로 연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특별한 경우이지만, ‘잣은 만세받이’와 ‘날만세받이’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두 거리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좋은 사례이다.

L은 신들이 굿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M~P는 복잔내림의 과정이다. 이전 거리에서 연행되었던 복잔내림과 M은 그 의미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2-1)과 2-2)의 복잔내림은 한 거리 안에서 이루어진 부속 절차이지만, 2-3)의 복잔내림은 거리의 일부로 연행되었지만 이전의 복잔내림과 달리 갖추어 연행되었다.¹⁹⁾ 연평도 풍어굿은 개인굿이 아닌 대동굿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간단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18) 이용식, 『황해도 무악의 역사성』, 『황해도굿의 이해』(한국무속학회, 2008), 91쪽.

19) 하지만 복잔내림은 신을 청배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하나의 거리로 보기는 힘들다. 무감서기를 독립된 거리로 보기 어려운 이유와 비슷하다.

4) 칠성제석굿

A. 만세반이

㉠ 서두 ㉡ 장소 아뢴 ㉢ 일시 아뢴 ㉣ 굿을 준비하는 정성 ㉤ 칠성풀이와
청배 ㉥ 제석신들이 오는 과정과 각 지역에 좌정하는 과정 ㉦ 신들에게 올
리는 제물 ㉧ 제석신의 복장 ㉨ 명과 복 달라 기원 ㉩ 굿상에 붙여진 79개
의 선박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복을 달라 기원 ㉪ 풍어 기원

B. 축원

C. 긴노래

D. 바라춤

E. 점치기-바라 던지기

F. 부정풀이-자장단(경쇠) 좌창

G. 춤-입에 하미를 물고

H. 쌀산-쌀을 칠성검 위에 올려 어민회장에게 쌀산을 바친다.

I. 공수-여러 신이 칠성검에 내려 마을을 지켜주겠다는 내용

J. 신복 겹쳐 입기-환유, 환웅천황, 산신님 신복 겹쳐 입기

K. 공수-환웅천황을 비롯한 여러 신령들이 부자 되게 돕겠다는 내용

L. 신복 겹쳐 입기-용왕님, 물애기씨, 용궁애기씨 신복 겹쳐 입기

M. 용궁타고 공수-용왕신이 풍어를 주겠다고 공수

N. 공수-모든 부정을 풀어주겠다는 내용

O. 천수타령

P. 긴노래

Q. 공수

R. 복타령-선주들과 주민들에게 복떡을 나눠주면서 복타령을 부른다.

S. 배치기소리

칠성제석굿은 명과 복을 기원하기 위해 제석신을 청배하여 놀리는 굿으로, 완벽한 서사구조는 아니지만 유일하게 만세받이에서 서사무가가 불러지는 거리이다. 만세받이에서는 ‘제석신들이 내려오는 과정 -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신들이 좌정하는 과정 - 신들에게 올려야 하는 제물 - 제석신의 옷차림’ 등이 묘사된다. 오십삼 분의 제석신이 약수삼천리를 건너실 때 50분은 돌아가시고 3분은 건너 동에는 서울, 남에는 북향산, 연평도에는 장군당 맥을 지었다. 제석신들에게는 인절미, 차절미, 기름절미, 무절미 등을 반드시 서 말 서 되 올려야 한다. 그리고 깊은 산의 고비고사리, 얇은 산의 세벌 삼죽, 앞바다의 미영나물, 돌에 돋는 성목나물, 동해바다 다시마채소, 심신산천 더덕나물 등도 함께 올려야 하는데, 이 나물들은 각각 차지하는 신이 정해져 있다.

칠성제석굿은 크게 4단락으로 나뉘며, 모시는 신격의 부류가 3개로 구분된다. 신격은 제석신에서 단군과 산신으로 다시 용왕과 물애기씨 등 바다의 신으로 전환된다. A~I는 칠성과 제석신을 청배하여 놀린 후 부정을 풀고 주민들에게 축원을 하는 절차이고, J~K에서는 환유, 환웅천황, 산신님을 청배한 후 공수를 준다. L~M에서는 용왕님, 물애기씨, 용궁애기씨 등을 청배하여 용궁²⁰⁾을 타고 주민들에게 공수를 준다. O~R에서는 다시 제석신으로 신격이 변하여 주민들에게 복을 준다. 신격의 변환 장치는 신복으로, J에서 환유, 환웅천황, 산신님의 신복을 겹쳐 입음으로 해서 신격이 변환되고, 겹쳐 입은 신복을 벗고 L에서 다시 용왕, 물애기씨, 용궁애기씨의 신복을 겹쳐 입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신격이 변한다. 그리고 N에서 겹쳐 입었던 신복을 벗음으로 해서 원래의 제석신으로 돌아온다. 제석신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옥수를 뿌리며 천수타령(O)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부정을 씻어낸다.

20) 삼색과일, 밥 세 숟가락, 밤, 대추, 돈 등을 넣은 물동이로 바다의 용궁을 상징한다.

5) 타살군웅굿(생타살굿)

- A. 만세받이 - ㉠ 서두 ㉡ 일시와 장소 이룸 ㉢ 풍어굿을 하는 이유 이룸 ㉣ 풍어와 안녕 기원 ㉤ 청배 ㉥ 만신 일행에게 재수와 복 달라 기원
- B. 긴노래
- C. 공수
- D. 사슬세우기 - 쇠머리
- E. 사슬지우기
- F. 사슬세우기 - 돼지머리
- G. 사슬지우기
- H. 사슬세우기 - 통돼지
- I. 만세받이 - ㉠ 청배 ㉡ 제액 기원 ㉢ 무탈 기원 ㉣ 명, 복 기원
- J. 사슬지우기
- K. 긴노래

타살군웅굿은 여러 군웅들을 모셔서 위로하고 대접하는 굿으로,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생타살굿과 익은타살굿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타살군웅굿은 생타살굿으로 제물을 모두 익히지 않은 것으로 준비하였다. 사슬세우기는 쇠머리, 돼지머리, 통돼지 순으로 세 차례 이루어졌다. 이 거리에서는 만세받이가 처음과 후반부에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A는 청배를 위한 절차이고, G는 신에게 특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한 절차이다. 반복적인 사슬지우기²¹⁾를 통해 굿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21) 사슬지우기는 무녀가 사슬에 꽂혀있는 제물을 손으로 때려서 넘어뜨리는 행위이다. 이때 사슬이 밖으로 넘어져야 좋다.

6) 성주굿

- A. 만세받이 - ㉠ 서두 ㉡ 굿의 일시와 장소 아뢴 ㉢ 여러 성주신 호명하여 청배 ㉣ 명·복 달라 기원
- B. 긴노래
- C. 춤
- D. 지정타령 - ㉠ 성주본 ㉡ 이들을 낳으면 효자 돼라 딸을 낳으면 열녀가 되네
- E. 공수
- F. 춤
- G. 날만세받이

성주굿은 한 집안의 길흉화복을 담당하는 성주신을 청배하여 놀리는 굿이다. 성주굿에서는 주무가 부채를 펼쳐 위를 향해 들고 그 위에 흰종이를 접어 얹은 후 관중을 향해 서서 만세받이를 한다. 개인굿에서는 성주굿을 갖추어 하지만 연평도 풍어굿은 마을굿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행하였다.

7) 소대감놀이

- A. 만세받이 - ㉠ 서두 ㉡ 풍어굿 일시와 장소 아뢴 ㉢ 풍어와 안녕 기원 ㉣ 청배
- B. 긴노래
- C. 춤
- D. 명·복 타령
- E. 공수
- F. 긴노래
- G. 배치기소리

곳에서 대감은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대감 중 소(蘇)대감은 육식을 하지 않는 대감으로, 소대감놀이는 소대감에게 명과 복을 기원하는 곳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대감’이라는 명칭이 붙는 거리는 대부분 ‘대감놀이’, ‘소대감놀이’, ‘결립대감놀이’와 같이 뒤에 ‘놀이’가 붙는다는 것이다. 대감류 거리들은 ‘명·복 타령’과 ‘송거타령’ 등 타령과 함께 장구잡이와 만신의 재담으로 진행되는데, 이들 거리에 ‘곳’이나 ‘거리’보다 ‘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8) 성수거리

- A. 만세반이 - ㉠ 서두 ㉡ 일시와 장소 아뢰 ㉢ 풍어굿 아뢰 ㉣ 청배 ㉤ 풍어와 건강 기원
- B. 긴노래
- C. 쌀산
- D. 공수 - 풍어와 꽃게에 관한 공수
- E. 장군놀이
- F. 공수 -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해 서운함
- G. 장군놀이
- H. 공수 - 그동안 임경업장군에게 소원했던 것에 대해 질타
- I. 기점 - 주민에게
- J. 공수 - 약사가 개인굿과 대동굿을 구별하자고 제안
- K. 장군놀이
- L. 장구잡이와 만신의 대화 - ㉠ 자신이 중국의 장군이라고 소개 ㉡ 빼주(술)와 연초(담배)를 달라고 함 ㉢ 술을 받아 마시고 좋아함 ㉣ 담배를 받고 채수 열어 줄 테니 걱정마라고 함 ㉤ 담배 4개비를 거꾸로 물고 불붙이기 ㉥ 담배를 바닥에 뱉고 춤추기
- M. 액막이

- N. 고사반 넘기기
- O. 공수-쌀산을 주면서
- P. 긴노래
- Q. 날만세받이

성수거리는 만신이 모시는 신을 청배하여 놀리는 거리이다. 성수거리에서는 장군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 장군놀이²²⁾가 반복적으로 연행되었다. 굿의 중반부에 이루어지는 장구잡이와 만신의 대화(L)를 통해 성수장군의 근본을 확인할 수 있다. 성수장군은 중국의 장군이며, 빼주와 연초를 좋아한다. 성수장군은 담배 여러 개비를 한꺼번에 입에 물고 불을 붙이는데, 이때 담배를 거꾸로 문다. 이는 당제에 원새끼를 사용한다거나, 굿이나 제사를 지낼 때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액막이(M)는 오른손에 쌀을 담은 주발을 들고 덕담 장단에 맞춰 부르는데, 정월부터 선달까지 드는 홍수를 막아준다는 내용이다. 고사반 넘기기(N)는 굿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주발을 거꾸로 뒤집어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세 차례) 세게 내리친다. 이때 쌀이 떨어지지 않아야 좋다.

9) 익은타살

- A. 만세받이 - ㉠ 서두 ㉡ 제일과 장소 아뢰 ㉢ 감홍신령의 복장 설명 ㉣ 여러 감홍신 청배 ㉤ 풍어기원 ㉥ 만신 일행의 안녕 기원
- B. 긴노래
- C. 춤
- D. 복주기 - 오방기로 복을 주는 흥내를 냄
- E. 점치기 - 칼과 삼지창 돼지 다리에 꽂기

22) 양손에 신칼을 들고 제자리에 서서 허리를 뒤로 꺾어 목을 찌르는 흥내를 내는 행위.

- F. 공수
- G. 사슬세우기
- H. 만세받이 - ㉠ 감홍신 청배 ㉡ 여러 군웅신 청배
- I. 사슬지우기
- J. 긴노래
- K. 축원
- L. 배치기소리

익은타살굿은 생타살굿과 의미는 같지만 생타살굿에서는 익히지 않은 제물을 준비하는 반면, 익은타살굿은 삶아 익힌 제물을 준비한다. 두 굿의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생타살굿의 만세받이에서는 군웅신의 청배가 간략하게 이루어진 반면, 익은타살굿에서는 감홍신의 옷차림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여러 감홍신을 청배하였다. A - ㉠에서는 꽃게 풍어를 기원하여 풍어굿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신을 청배한 후 오방기로 주민들에게 복을 주고(D) 신이 잘 받았는지 확인하기(E) 위해 제물에 칼과 삼지창을 꽂아 세웠다.

10) 먼산장군거리

- A. 만세받이 - ㉠ 서두 ㉡ 장소 아뢰 ㉢ 여러 장군 청배
- B. 긴노래
- C. 거풍 - 진설된 생선
- D. 춤
- E. 장군놀이
- F. 공수
- G. 긴노래

먼산장군거리는 여러 명산에 있는 장군들을 청배하여 놀리는 곳이다. 거리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굿의 진행이 빨라졌는데, 주민들과 선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굿을 간략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다. 주민과 선주들의 무관심 때문에 만신들의 심기가 불편해져 굿의 후반부에서 공수를 줄 때 주민과 선주들을 질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1) 이북 대감놀이

- A. 만세반이
- B. 긴노래
- C. 공수
- D. 만신과 장구쟁이 재담-㉠ 자신이 이북대감이며 이북에서 왔음을 알림 ㉡ 입장군 거론 ㉢ 여러 대감 거론 후 복 주겠다고 함 ㉣ 쏙거타령을 하려고 하자 김금화만신이 제지 ㉤ 잘 놀고 복을 주고 가겠다고 함
- E. 대감놀이
- F. 긴노래
- G. 축원

대감놀이는 재물을 관장하는 대감신을 청배하여 놀리는 곳으로, 원래는 ‘이북 대감놀이’가 아니라 ‘대감놀이’로 부른다. 하지만 앞서 김동호(서울굿)에 의해 한양 대감놀이가 연행되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기 위해 ‘이북 대감놀이’라 하였다. D-㉡에서는 만신이 쏙거타령을 하려고 하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금화만신이 쏙거타령은 영산대감에서 할 거라며 제지하였다. E는 여러 대감을 거론한 후 ‘잠시 잘 놀았으니 잘 되게 도와주겠다’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12) 서낭목신거리

- A. 만세받이 - ㉠ 서두 ㉡ 장소 이뤘 ㉢ 여러 목신 서낭 청배
- B. 긴노래
- C. 공수
- D. 제물에 방울 대보기
- E. 서낭목신놀이
- F. 공수 - 뜯긴 돼지다리의 살점을 입에 물고
- G. 쌀산
- H. 공수
- I. 날만세받이
- J. 긴노래

서낭목신거리는 고목에 머물고 있는 서낭을 모셔 놀리는 곳이다. 임경업장군이 모셔져있는 충민사 바로 앞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만세받이에서 이 나무를 충민사를 지키던 목신서낭이라 언급하였다. 서낭목신거리에서는 청배(A, B) 이후 공수를 주고 굿상 옆에 차려진 제물들에 방울을 댄 후 떼어내어(D) 신이 제물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방울을 내려놓고 서낭기를 양손에 나누어 들고 춤을 추다가 무명을 풀어 반으로 접은 후 돌돌 말아 머리에 두르고 굿상에 걸려있던 한지를 떼어 내어 양손에 나누어 들고 춤을 추다가 한지를 머리에 꽂았다. 조무가 건네는 막걸리를 마시고 주민들에게도 나누어준 후 목신서낭의 형용함을 보이기 위해 굿상 옆에 준비된 절단된 돼지다리를 입으로 물고 제자리에서 돌다가 내려놓았다(E). 굿의 후반부로 갈수록 주민들의 참여가 더 저조해져서인지 공수를 줄 때 불편한 심기를 강하게 드러냈다.

13) 조상굿

- A. 만세받이
- B. 긴노래
- C. 공수-㉠ 당할머니인 강씨 할머니 언급 ㉡ 당할머니의 책무 ㉢ 당에 모셨던 신격 거론 ㉣ 당할머니의 정성
- D. 축원
- E. 나무아미타불
- F. 공수

조상굿은 조상님의 영혼을 맞아 대접하는 굿이다. 만신은 긴노래 이후 신을 받아 공수를 주었는데, 이때 해당되는 조상옷을 들어 차례로 거풍시켰다. 개인 굿에서는 조상옷을 자신의 가까운 조상이나 억울하게 죽은 조상에게 해주지만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당할머니였던 유씨 할머니와 작년 봄에 죽은 할머니, 그리고 앞서 죽은 고씨 할머니(공용이네 할마이)가 만신에게 내려 그들을 위로했다. 이후 조상옷과 함께 저승 가는 길에 쓸 손수건인 손푸념(손보시)이라는 베를 각각의 영혼을 위해 찢었다.

14) 장발굿

- A. 만세받이(칠성장발)
- B. 긴노래
- C. 만세받이(감홍장발)
- D. 공수
- E. 쑹거타령
- F. 배치기소리
- G. 띠배 띄우기

장발굿은 풍어굿 중반부의 마지막 거리로 장발에 좌정했던 신들을 전송하는 굿이다. 장발굿은 칠성장발, 장군장발, 만감홍장발, 군웅장발 순²³⁾으로 띄워야 하지만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칠성장발과 감홍장발만을 띄웠다. 칠성장발은 장발(기다란 흰 배)의 한쪽 끝을 굿청 위 꽃대에 매달아 놓고 만신이 장발을 손으로 감아쥐며 만세받이를 시작한다. 만세받이를 하면서 칠성장발을 잡고 실타래를 감듯 장발을 어깨 뒤로 감은 후 춤을 춘다. 굿청에 매달린 장발이 팽팽해질 정도로 감기면 세계 잡아당겨 마저 감은 뒤 감은 장발을 양손에 들고 주민들 머리 위에서 놀린다. 이후 감홍장발도 칠성장발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장발굿은 이미 좌정해있는 신들을 송신하기 위한 굿이기 때문에 청배 절차 없이 날만세받이를 통해 신을 전송한다. 하지만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날만세받이가 아닌 만세받이로 신들을 전송하여, 청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세받이의 기능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발굿의 마지막 부분에 만신일행은 배치 기소리를 하면서 동그란 짚꾸러미 띠배를 바닷가로 가지고 갔다. 원래는 이날 띠배를 띄워야하지만 물때가 맞지 않아 다음날 아침에 띄우기로 하였다.

3. 대화를 통해 연극적으로 진행되는 거리

1) 영산할아밤 · 영산할맘

배연신굿과 어촌지역의 마을굿 등 어업과 관련된 굿을 할 때만 연행되는 이 거리는 만신이 된 공주님을 모시던 영산을 청배하여 놀리는 굿으로 장구쟁이, 주무, 조무 세 명에 의해 대화로 진행된다.

A. 긴노래

B. 주무와 조무 대화-㉠ 만신 2인이(영산할아밤: 김금화, 할맘: 김정화) 광

23) 김금화, 앞의 책(1995), 302쪽.

대(탈)를 머리에 얹어 묶기 ㉠굿청 밖에서 신대를 함께 들고 서로 밀었다 당겼다는 반복하면서 노 짓는 흥내를 내며 함께 등장 ㉡공주님을 모시고 다녔던 이야기 ㉢풍어 기원 ㉣잘 놀고 가겠다고 함

C. 손에 들고 있던 신대를 떠배 안에 꽂기

D. 주민들 쌀산 봐주면서 축원, 덕담

연평도 풍어굿에서 ‘영산할아밤·영산할맘’거리는 위의 순서로 연행되었다. 김금화 자료집에서는 이 거리를 만세받이로 갖추어 시작하였으나,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긴노래로 만세받이를 대신했으며, 대화 전개도 소략하게 진행되었다. 이 거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산을 왜 신으로 모시게 됐는지, 그리고 영산의 존재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공주님과 영산을 왜 신으로 모시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김금화 자료집의 공주님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주님거리는 만신이 된 공주님을 모셔 대접하는 곳이다. 옛날에 임금의 자손이 자꾸 무당이 되어 걱정하던 끝에 공주가 또 무당이 되자 신하에게 물살이 험하여 살아올 수 없는 등산리 장산곶이라는 곳에 뱃동사, 영산할맘, 할아밤, 공주 등을 배에 실어다 버리도록 했다고 한다. 이 배는 바다를 다니면서 풍랑도 만나고 험한 물살에도 휘말렸으나, 배에 탄 모든 이들의 발이 배에 붙어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계속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모두 나이가 들어 늙어 죽었는데, 어떤 풍랑에도 물에 빠져죽지 않고 살아난 이들이라 하여 서낭애끼씨, 이를테면 공주님을 만수대탁굿과 배연신굿에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²⁴⁾

공주님을 신으로 모신 것은 단순히 공주가 만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공주님과 영산은 어떤 풍랑에도 물에 빠져죽지 않고 살아나는 존재이다. 굿에서 공주님과 영산을 신으로 청배하여 놀리는 것은, 죽음의 공간이 될 수도 있는 바다에서 그들처럼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24) 위의 책, 347~350쪽.

있다. 위의 내용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서낭애기씨’의 존재이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서낭애기씨=공주님’으로 해석되는데, 배에 모시고 있는 배서낭과 공주님이 같은 존재일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영산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은 김금화의 자료집 ‘영산대감·영산할아밤·영산할맘’²⁵⁾에서 찾을 수 있다.

- A. 만세받이 - ㉠ 청배 ㉡ 건강 기원 ㉢ 해난사고 없게 해 달라 기원 ㉣ 새 덕 입혀 달라 기원
- B. 긴노래
- C. 주무, 조무, 장구잡이의 대화 - ㉠ 할맘이 할아밤 찾기 - 할아밤 직업, 할아밤 고향, 할아밤 생김새, 할아밤 옷차림 묘사 ㉡ 난봉가 ㉢ 할아밤이 할맘 찾기 - 할맘 생김새, 할맘 신분(만신)에 대해 설명 ㉣ 할맘과 할아밤 상봉 ㉤ 난봉가 ㉥ 첫째 쇠똥이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과 둘째 개똥이의 직업 설명 ㉦ 가족 상봉 ㉧ 술비소리에 맞춰 고기 잡는 흥내를 내며 풍어기원 ㉨ 배치기소리

이 거리는 크게 청배와 대화로 구분된다. 대화의 주 내용은 신의 내력을 밝히고 풍어를 기원하는 데 있다. 얼핏 보면 ㉠~㉨의 과정이 ㉣를 위한 예비단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과 ㉡는 영산의 신분과 고향, 생김새, 그리고 옷차림 등을 묘사함으로써 영산의 근본을 밝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신의 근본을 대화를 통해 연극적으로 전개하는 방식은 ‘대감놀이’와 ‘성수거리’, ‘칠성제석굿’ 등에서도 발견되는데, 황해도굿에서 서사무가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25) 위의 책, 242~253쪽.

개똥이: 오마이라노, 무슨 말이야요, 내 참 우리집안 잘 돌아간다. 아빠인 영자구 오마
인 무당이구 아들은 화장이니 이제 아버지 재 묻은 반대기 실컷 잡숫자시다.

...중략...

영감: 너도 중선배 마련하고 이 집 사위되니 우리 이 배에 고기나 잔뜩 퍼실어주자.²⁶⁾

영산할아뻘은 영자, 영산할뻘은 무당, 아들은 화장임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영산할아뻘은 원래 사공이었지만 나이가 들어 영자가 되었으며, 영산할뻘은 중간에 신이 내려 무당이 되었다. 만신인 시어머니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신이 내려 연평도 당할머니의 경우처럼 영산할뻘도 만신인 공주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나중에 신이 내려왔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들 개똥이는 화장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인심 좋은 배임자 아주마이를 만나 사위가 되기로 했는데, 이는 영산이 왜 풍어를 기원하는 신이 되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다. 영산은 단순히 신으로서 인간을 위해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풍어기원은 곧 영산의 아들인 개똥이의 풍요로운 삶과 직결된다. 이런 이유로 영산은 풍어기원의 신으로 좌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당위성을 갖는다.

영산의 사전적 의미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이다. 하지만 ‘영산’을 단순히 인간이 신으로 좌정한 ‘인격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다면, 임경업장군을 비롯한 여러 장군 거리에도 ‘영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영산임경업장군’ 또는 ‘영산장군’이라 하지는 않는다. ‘영산’은 바다와 관련된 신에게 붙는 관형사로 보아야 한다. ‘용왕’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신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보편적 존재인 ‘용왕’이 아닌 구체적 존재인 ‘영산’에게 직분을 부여해 풍어를 기원하고 있다. 풍어굿에서의 ‘영산’은 잡귀잡신이 아니라 위험한 바다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신, 그리고 풍어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26) 위의 책, 250쪽.

2) 마당굿

- A. 잣은 만세받이 - ㉠ 서두 ㉡ 수비, 뜯귀뜯신, 액귀영산, 상물 배송 ㉢ 여러 서낭 배송 ㉣ 대동초목에 있는 잡귀잡신 배송 ㉤ 여러 잡귀들 배송
- B. 공수
- C. 춤
- D. 잡귀 잡신 풀어먹이기 - ㉠ 해산원신 ㉡ 개량척사 ㉢ 물에 빠져죽은 귀신 ㉣ 자살귀 ㉤ 인콰등갑쟁이 ㉥ 절뚝발이 ㉦ 용창(돼지를 싫어한다) ㉧ 포수
- E. 봉사놀이 - ㉠ 누이에게 들어가겠다고 함 ㉡ 누이가 아무나 넘는 데가 아니라고 거절 ㉢ 누이 손목 만지기(장구채를 누이의 손목으로 착각) ㉣ 누이와 장대장네 굿하러 간 이야기 ㉤ 굿 하러 가기 전에 누이와 수수밭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며 농익은 채담 주고받기 ㉥ 봉사(오라바이)가 좋아하는 제물 준비 ㉦ 파경(외장구 자장단)으로 잡귀잡신 풀어먹임 ㉧ 봉사에 술 대접 ㉨ 연평에 긴대업, 족제비업 등을 쏘아 들어오겠다고 함 ㉩ 따뜻한 테를 보고 눈을 뜸
- F. 날만세받이
- G. 칼산던지기

마당굿은 여러 잡귀잡신을 풀어먹여 보내는 굿으로 굿청 옆에서 진행되었다. 잣은만세받이로 시작하지만 마당굿에서의 잣은만세받이 사설은 청배보다는 배송에 대한 내용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이때의 잣은만세받이는 청배보다는 굿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로 보아야 한다. 마당굿에서 잡귀잡신은 천신, 인격신, 직능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존재이다. 임경업장군이나 최영장군처럼 영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 인격신으로 좌정하지만, 일반인이 불운한 죽음을 맞아 원한을 풀지 못하면 잡귀잡신이 된다. 마당굿은 이러한 잡귀잡신을 풀어먹여 해원시키는 거리이다.

D에서는 8종류의 잡귀잡신 등장하는데, 각각의 존재마다 해원시키는 방법이 다르다. 잡귀잡신들을 해원시키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춤을

추는 것으로, ㉑, ㉒, ㉓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음식을 먹여 해원시키는 것으로, ㉔, ㉕, ㉖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㉗, ㉘이다. 해산 원신은 아이를 낳다 죽은 귀신으로 춤을 추면 병이 낫는다. 개량치사는 화나고 열나서 몰래 죽은 귀신으로 음식을 먹여 해원시킨다. 물에 빠져죽은 귀신은 밥을 먹여 해원시키고, 양젓물을 먹고 죽은 귀신인 자살귀는 백설기를 조금씩 떼어 먹어야 한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안팎등갑쟁이와 절뚝발이는 춤을 추면 병이 낫는다. 성병으로 인해 코가 뚫린 용창은 돼지를 싫어하는데, 용창타령을 부르고 병이 낫는다. 포수는 사냥타령을 부르고 해원된다.

마당굿에서 주목할 점은, 마당굿에서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액자소설처럼 하나의 거리에서 또 하나의 굿이 연행된다는 것이다. 큰 틀의 굿은 만신이 연행하는 굿이고, 굿 속의 굿은 마당굿의 등장인물 중 하나인 봉사에 의한 굿이다. 봉사놀이(E)에서 봉사는 파경을 통해 ‘매화풍요이 여자한테 지질러 죽은 귀, 화간송당 시에 줄 타는 광대구경 구중궁궐 별당 안에 수절허던 열녀 과부귀, 처녀 죽은 물미귀, 총각 죽은 몽치귀, 홀애비 죽어서 말뚝귀, 통통부어서 죽은 귀, 야밤삼경에 밤을 뛰어넘어갔다가 뚝 떨어져서 담에다 불알통이 툭 깨져서 죽은 귀, 시주허네 쌀 퍼주고 엇 사먹다가 물동이를 장판당에다 갈보들에다 흐드득 싸고 죽은 귀, 금잔옥배 불러놓고 매춘하던 장더귀, 만경창과 대해 중에 배를 건너던 사공귀, 심심산골에 벌목하던 목신귀, 충신진영 옥사귀, 월명사천 달 밝은데 잉그려오 상사귀’ 등을 풀어먹인다.

마당굿에서 봉사는 단순히 눈이 안 보여 죽은 잡귀가 아니다. 더벅머리 아이적부터 총각 때까지 굿을 하러 다녔다(E-㉑)는 것과 파경(E-㉒)을 하여 뜯겨 뜯신을 풀어먹이는 행위는 독경과 점복을 행하는 장님인 맹격(盲覲)의 그것과 흡사하다. 특히 마지막에 ‘일월이 명랑하고 감았던 눈을 뜨니께 답답하고 안타깝던 일이 대동마을이 답답하고 걱정되더니 눈 확 열려서 그냥 전부다 환하고 안 되는 일이 없음매, 나는 이제 가고’라고 하여 봉사의 눈 뜨임과 마을의 운명이 연결되어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은 봉사 오라바이가 단순히 잡귀잡신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임을 시사한다.

4. 장구장단만으로 굿을 진행하는 거리

1) 강변용신굿

- A. 날 만세받이 - 잡귀 잡신 잘 받아가라는 내용
- B. 퇴송
- C. 칼산

강변용신굿은 바다에 떠도는 수비와 영산들을 풀어먹이고, 띠배에 모든 액을 실어 바다로 띄워 보내어 배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며 바다에서 죽어간 용신들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굿이다.²⁷⁾ 이 굿은 만신이 장구장단만으로 굿을 진행하는 거리로 방파제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Ⅳ. (잣은)만세받이와 긴노래의 기능 확대

각 거리마다 주재하는 만신이 다르고 여러 행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거리별 구조를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 속에서 굿이 짜여짐을 알 수 있다. 노래와 춤으로 신을 청배하는 모든 거리는 만세받이로 시작된다. 만세받이의 사설은 크게 굿거리 알리기와 굿의 시간과 장소 아뢰, 그리고 해당 신 청배로 구성된다. 칠성제석굿의 경우처럼 신이 좌정하게 된 노정기가 첨가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로, 만세받이는 청배²⁸⁾를 위한 무가라 할 수 있다. 이후 타령과 놀이, 재담, 공수 등이 연행되며, 굿거리의 마지막 부분에 신을 보내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김금화 만신이 주재하는 굿거리는 대부분 ‘(긴/잣

27) 위의 책, 259쪽.

28) 이에 대해서는 홍태한의(홍태한, 『황해도굿의 무가 - 만세받이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16, 2008) 논의를 주목할 만하다.

은)만세반이-타령/놀이/재담/공수-날만세반이'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진행 과정은 연행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공연을 위해 무대에서 연행된 곳에서는 위의 과정들이 큰 변화 없이 진행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만세반이의 기능을 긴노래가 대신하거나 잣은만세반이의 기능이 확대되는 등 현장 상황과 무당의 연행능력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한다.

(잣은)만세반이는 신을 청배할 뿐만 아니라 신의 명칭을 호명하여 거리의 변화를 알려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굿거리의 도입부분에서 불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연평도 풍어굿을 살펴본 결과, (잣은)만세반이는 드물게 굿의 중간에서도 불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굿거리 중간에 (잣은)만세반이가 불리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가)하나의 거리에서 처음에 청배했던 신과 동등한 다른 신격을 새롭게 청배할 때, (나)여러 거리를 하나의 거리로 압축해서 굿을 진행하여 각각의 거리에 해당하는 신격을 청배할 때, (다)정성을 들인 특별한 제물을 신에게 드릴 때이다.

‘장발굿’(2-14)-C)에서(가)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나)의 사례는 ‘초부정·초감홍·영정물림’(2-3)-K)에서 찾을 수 있는데, ‘초부정·초감홍’과 ‘영정물림’을 따로 연행할 때는 ‘부정’과 ‘감홍’에 대한 만세반이를 별개로 진행하지만 세 굿이 하나의 거리로 연행됐을 경우에는 ‘부정’과 ‘감홍’을 하나로 연결하여 청배하고, ‘영정’은 별도로 청배한다. (다)의 신에게 바치는 특별한 제물이란 사슬세우기에서 사용되는 쇠머리, 돼지머리, 통돼지 등을 말한다. 사슬세우기는 주로 ‘타살군웅굿’에서 연행되는데, ‘생타살굿’(2-5)-D, F, H)에서는 익히지 않은 쇠머리와 돼지머리, 통돼지를 세우고 ‘익은타살굿’(2-9)-G)에서는 익힌 제물로 사슬세우기를 한다. 제물을 사슬에 세워 손을 댄 후에도 사슬이 넘어지지 않고 잘 세워지면 만세반이를 하여 재차 신을 청배한 후 흠향하길 기원한다. 이때 만세반이는 각각의 사슬을 세울 때마다 하거나 마지막 제물을 세울 때 한번만 할 수도 있다.

‘잣은만세반이’는 기능에 따라 두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청배의 기능을 담당했을 때는 ‘잣은만세반이’로 굿의 서두에 불리며, 송신의 기능을 담당했을 경우

에는 ‘날만세받이’로 굿의 끝부분에 불린다. ‘жат은만세받이’와 ‘날만세받이’의 구분은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장발굿’과 ‘마당굿’, 그리고 ‘강변용신굿’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된다. 이들 거리에서 불리는 (날)жат은만세받이의 사실 대부분은 도입부분에서는 신을 청배하고 끝부분에서는 신을 보내는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때의 (날)жат은만세받이는 청배와 송신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긴만세받이’와 ‘만세받이’는 청배의 기능만 있을 뿐 송신의 기능이 없는 반면, ‘(날)жат은만세받이’는 청배와 송신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표 3〉 거리별 만세받이와 긴노래 삽입 현황

연 행 절 차	청 배	청 배 확 인	송 신
당제사	없음		
당맞이	만세받이/긴노래	긴노래	없음
신청올림	없음		
상산맞이	만세받이	긴노래	없음
초부정·초감홍·영정물림	긴만세받이/жат은만세받이	긴노래	날만세받이/긴노래
칠성제석굿	만세받이	긴노래	없음
타살군웅굿	만세받이	긴노래	긴노래
성주굿	만세받이	긴노래	날만세받이
소대감놀이	만세받이	긴노래	긴노래
성수거리	만세받이	긴노래	긴노래
익은타살	만세받이	긴노래	긴노래
면산장군거리	만세받이	긴노래	긴노래
이북 대감놀이	만세받이	긴노래	긴노래
서낭목신거리	만세받이	긴노래	날만세받이
조상굿	만세받이	긴노래	없음
영산할이밤·영산할땀	긴노래	없음	없음
장발굿	만세받이	긴노래	없음
마당굿	жат은만세받이	없음	날만세받이
강변용신굿	жат은만세받이	없음	없음

신과 인간의 중재자인 무당은 신과의 소통을 시도할 때 반드시 말이 아닌 노래로 표현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만세받이다. 하지만 만세받이보다 신과의 소통을 위해 더 자주, 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긴노래이다. 일반적으로 만세받이나 타령 등은 ‘부른다’ 혹은 ‘한다’라고 하지만 긴노래는 ‘부른다’나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띄운다’고 한다. 이때 띄우는 대상은 신으로, 긴노래의 주 기능이 신과의 소통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하겠다.

긴노래 역시 만세받이처럼 노래로 불린다. 다만, 만세받이는 악사의 반주와 조무의 후창, 그리고 정해진 틀에 의해 정형화된 방식으로 부르는 반면, 긴노래는 무녀 혼자 가볍게 읊조리듯 음영조로 부른다. 만세받이가 끝난 직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긴노래가 불려진다. 하지만 ‘당제사’처럼 악사와 조무 없이 주무 혼자 굿을 연행하며 만세받이를 부르지 않는 거리의 경우 긴노래도 띄우지 않는다. 긴노래의 주요 기능은 만세받이에서 청배한 신이 잘 좌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행상황에 따라 청배 기능뿐만 아니라 기원과 송신의 기능까지 겸하기도 한다.

연평도 풍어굿의 장면과 사설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긴노래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① 만세받이에서 청배한 신을 다시 호명하여 재차 청배하거나 청배한 신이 좌정했는지 확인한다. ② 만세받이에서 청배했던 신 외의 다른 신을 다시 청배한다. ③ 원하는 바를 신에게 기원한다. ④ 날만세받이 대신 송신의 기능을 한다.

① 만세받이에서 청배했던 신을 재차 청배하거나 좌정 확인

부군님 분향님 도당님 임경업장군 남산장군 본산장군 충효열사 2-1)-D

부군님 분향님 맞이해보고서 듭니다. 2-2)-B

올다구나 초감홍 초영정에 영부정씨들 놀러와요 2-3)-B

철성님 제석님 여래다제석 아미제석 나옹제석 터주제석 용왕제석... 2-4)-C

만군웅 천군웅들 다 지신군웅 성주군웅 위도당 독군웅 용신군웅... 2-5)-B

성주판관님 노십시다 2-6)-B

술술 붙어들이는 소대감님들 노십시다 2-7)-B

어진 성수님들 신령님 장군님들 2-8)-B

면산장군님 본산장군님들 ... 이 본향으로는 연평도에 임경업장군님 놀러오셔 2-10)-B

대감님들 ... 다 받으시고 2-11)-B

영산할아바이 영산할파이 앞바다도 열두바다 ... 영산대감 돌아보시 3-1)-A

② 다른 신 청배

삼도강 부군님 천지신명님들 하강해요 2-1)-G

③ 기원

대연평에다가 근해바다 용왕님 고기 많이 나서 할결같이 만선 기원하고 신령님 보호해
요 2-2)-E

명사슬을 세워받고 복사슬 내여 잘 받노라 내 금일날 잘 받고 도와줍시다
2-9)-J

오늘 이 도당에 편안하게만 도와줘요 2-12)-J

④ 송신

군웅할아버지, 군웅할머니들, 도당군웅, 용신군웅님들 잘 받고 잘 놀고나요 2-5)-K

소대감님들 잘 놀고 나요 2-7)-F

신장님들 장군님들 잘 놀고나요 2-8)-P

면산장군님 본산장군님들 잘 놀고 갑시다 2-10)-G

대감님들 가실만 하회를 잘 놀고 납시다 2-11)-F

긴노래가 굿거리에서 연행되는 위치를 만세받이 직후와 굿거리 중반부, 그리고 굿거리 후반부로 구분했을 경우, 만세받이 직후에 연행되는 긴노래는 ①의 기능을 한다. 만세받이가 끝나면 무너는 곧바로 긴노래를 하는데, 이때 부르는 긴노래의 목적은 청배한 신들을 재차 호명하여 확인하거나 신이 잘 좌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3-1)-A의 경우 만세받이를 하지 않고 긴노래로 거리를 시작하여 긴노래가 만세받이의 기능을 하였다.

굿거리 중반부에 삽입되는 긴노래는 주로 ②의 기능을 한다. 긴노래가 거리 중반부에 삽입되어 만세받이에서 청배한 신 외의 다른 신을 청배한 경우는 매우 드문데, 당맞이에서는 만세받이를 통해 임경업장군을 청배하고 긴노래(2-1)-G를 통해 부군님과 천지신명을 청배하였다.

굿거리의 후반부에 띄우는 긴노래는 대부분 ③과 ④의 기능을 한다. 기존 자료를 살펴보면, 긴노래가 날만세받이를 대신하여 송신의 기능을 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 하지만 실제 연행 현장에서는 연행 상황이나 시간의 제약 등 여러 이유로 인해 날만세받이가 축소되거나 2-5)-K, 2-7)-F, 2-8)-P, 2-10)-G, 2-11)-F처럼 긴노래로 대신하는 경우가 다소 발견된다.

V. 장면의 확대와 축소를 통한 굿의 현장성 반영

굿은, 특히 공연이 아닌 현장에서 연행되는 굿은 사회적 변화와 연행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대처 방식은 무당의 연행 능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연행 능력이 뛰어난 무당일수록 장면의 확장과 축소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게 굿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뿐만 아니라 연행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굿을 짜나감으로써 굿의 현장성을 담아내려고 한다.

연평도는 조기잡이의 중심지였지만 조기잡이 쇠퇴이후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도 나빠졌다. 최근에는 조기잡이 대신 꽃게잡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과의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 원활한 조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어민과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을 장면의 확대와 축소를 통해 굿에 반영하였다. 장면의 확대는 크게 2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가장 먼저, 임경업장군의 반복된 언급에 의한 확장이다.

장군님은 충효열사 영웅호걸이 아니시더냐? 모두 충효열사 영웅호걸에 어민들이 의존하고 살고 또, 억만대군 팔만 수서를 거느리고 동서남북에 정을 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야(당제사 1-1)-D)

뵈오리오 뵈오리오 임경업장군님을 뵈오랴오(당맞이 2-1)-C)

부군님, 본향님, 도당님, 임경업장군님, 사해용왕님들 때를 가리지 말고 철을 따지지 말고 물 따라 길 따라서 대연평에다가(상산맞이 2-2)-E)

연평 바다의 용신의 영부정 임장군에도 영부정 씨(조부정·초감홍·영정물림 2-3)-A) 길에서는 길상덕 입혀주고 선왕에서는 선왕덕 입고 임경업장군이 도와줘서 소원하는 바 이뤄주고(타살군웅굿 2-5)-C)

팔만대령 거느리시는 장군니들 삼국충신의 임장군님이 이 도당에는(성수거리 2-8)-A) 장군님 소홀히 하고 그냥 옛날 옛 법은 다 버리고 새 법 내고 장군님 이하지도 않고...중략... 큰 일 없이 작은 일 없이 하나 같이 보살피고 장군님이 내려와 가지고 내리사랑해서 돌아보고(성수거리 2-8)-F)

신령님들이 굽이 보고 부군님들이 굽이 보고 상충신 임장군님 임장군님이 굽이 봅세다(익은타살 2-9)-A)

신이면, 장군님 임장군님이면, 여기 신장장군 대신신령님 모든 신이 합이 들어서 내 백성들을 도와서(익은타살 2-9)-B)

강화도로는 사신장군 김포동진의 작두장군 사해연평은 임경업장군 장군님들이 하회를 받아(면산장군 2-10)-A)

홍패불러 백패대감 홍패대감님 임장군님 대감님들(이북 대감놀이 2-11)-C)

여기 임장군님이 제일이라면서?(이북 대감놀이 2-11)-D)

김씨네 신어머니 연평도 하고도 임장군님 당에 나가서 인연되고 신의 하회 인의 하회 다 받으소야(이북 대감놀이 2-11)-B)

서낭님, 대감님, 장군님을 몰라라하고 너희들이 잘 살줄 알았느냐(서낭목신거리 2-12)-C)

장군님 우리 동네 도와주고 집집마다(조상굿 2-13)-F)

각각의 굿거리마다 모시는 대표 신격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굿을 진행하는 사이, 각 거리의 만세받이, 긴노래, 공수, 축원 등에서 임경업장군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풍어굿이 마을굿 단위의 굿이며, 마을 신앙의 중심에 임경업장군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 꽃게 풍어의 기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연평도는 칠산어장과 함께 조기잡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다. 하지만 1970년대 초부터 연평도 부근에서는 더 이상 조기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어로저지선 남하와 이상수온이다. 특히, 어로저지선 남하는 연평도 조기잡이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어로저지선이 남하하면서 조기를 잡던 주요 어장에 우리 어선들이 접근하지 못하여 어민들은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어민들의 피해와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해태(김) 양식과 함께 선박의 대형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으로 대형화된 어선들은 연평도 부근이 아닌 조기의 월동장으로 내려가 조기를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기 남획으로 인해 연평 어장에서는 더 이상 조기를 구경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기 어장이 사라지면서 연평도의 경제적인 풍요도 함께 사라졌다.

꽃게 많이 나게 도우시고 민어, 홍어, 광어, 많은 고기가 잔뜩 나고(당제사 1-1)-B)
저기 바다에 꽃게가 덕실덕실 저기 대조기가 울고 춤을 추고(칠성제석굿 2-4)-A)
꽃게 많이 잡고 아주 월래빚, 장래빚 다 갚게 해줄 테니까 ...중략... 물 위에 나는 용왕,
물 아래 디딘 용왕, 그저 이렇게 들어서 꽃게도 많이 잡고(칠성제석굿 2-4)-N)
고깃더미에도 다 만산하고 게 잡이도 많이 하게 돕고 올해는 보시오. 게 잡이도 만
해보다 올해는 더 많이 잡게 도와드리리다(성수거리 2-8)-D)
연평 앞바다에 조기가 많이 나고 게가 많이 나게 우리 장군님이 도와준다(성수거리
2-8)-F)

장원을 하게 도울 적에 게를 잡아 원한다면 게를 많이 잡게 돕고(익은타살 2-9)-A)
가는 천량 회고 오는 천량 배 부리는 사람들은 배를 잔뜩 저기 배 지나가서 게 잡고(익

은타살 2-9)-F)

연평도는 조기가 사라진 이후 침체기를 겪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꽃게잡이의 주 어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조기잡이가 활발했을 당시에 꽃게는 그물을 상하게 하는 불청객이었지만 조기가 사라진 현재 꽃게가 조기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2008년 연평도 연평도 풍어굿에서 만신들은 이러한 어업 환경의 변화를 의식하며 굿을 진행하였다. 꽃게에 대한 언급은 대부분 공수나 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드물게 만세받이에서도 불려졌다.

장면의 축소는 풍어 기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2008년 이루어진 연평도 풍어굿은 예상했던 것만큼 선주와 주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했는데, 종교적인 이유와 안정되지 않은 어업 경제 상황 때문이었다. 특히, 굿이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선주와 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했다. 이런 이유로 만신들은 굿을 하는 내내 공수를 주는 과정에서 서운함을 표현하였으며, 선주와 주민들의 저조한 참여는 굿의 진행에도 영향을 미쳐, 풍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리인 ‘영산할함·영산할아범’이 축소되어 간략하게 진행되었다.

〈표 4〉 연평도 풍어굿과 영흥 풍어제 연행 절차

순서	연평도 풍어굿	영흥 풍어제 ²⁹⁾
1	당제사	산맞이
2	당맞이	신청올림
3	세경돌기	세경돌기
4	신청올림	상산맞이
5	상산맞이	초부정·초감홍
6	초부정·초감홍·영정물림	칠성제석굿
7	칠성제석굿	성주거리
8	군웅타살	생타살굿·익은타살굿
9	성주굿	영정물림
10	소대감	대감굿1(수협 안-박명례)-확대

29) 2007년 3월 2~3일까지 김매물, 단화선만신을 경관만신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복잔내림, ‘무감서기’, ‘배치기소리’, ‘시슬세우기’는 독립된 굿거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되어 순서에서 제외시켰다.

11	성수거리	대감굿2(공판장 - 김매물) - 확대
12	익은타살	대감굿3(회센터 - 박인검) - 확대
13	면산장군	뱅인영감굿 · 영산대감 - 확대
14	이북 대감놀이	세준이 오삼춘
15	서낭목신거리	수왕길 가르기
16	조상굿	작두거리
17	영산할뎡 · 영산할아뎡 - 축소	깡변굿
18	장발굿	
19	마당굿	
20	강변용신굿	

위의 표는 2008년 연행된 연평도 풍어굿과 2007년에 연행된 영흥 풍어제의 연행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영흥 풍어제는 영흥대교가 개통되고 영흥화력발전소가 섬에 들어오면서 연행되기 시작하였다.³⁰⁾ ‘영흥 풍어제’는 발전소로 인한 인구 증가와 대교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생겨난 마을굿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영흥 풍어제는 초청 무너에 의해 연행되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져 하루 동안 연행되던 것이 2007년에는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경제의 풍요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마을굿인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주들의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굿의 진행에도 곧바로 적용되었는데, 선주들의 풍어를 기원하는 ‘뱅인영감굿 · 영산대감’과 상인들의 부를 기원하는 ‘대감굿’이 확대되어 진행되었다. 수협과 회센터, 공판장 세 곳에서 각각 다른 만신에 의해 대감굿이 이루어졌으며, 상인과 주민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주민들은 단지 굿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다. 굿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 만신은 굿을 탄력적으로 진행한다. 연평도 풍어굿과 영흥 풍어제는 모두 풍어를 기원하는 어촌 마을굿이다. 하지만 주민과 선주들의 굿에 대한 참여도에 따라 굿의 흐름이 달라진다. 연평도 풍어굿처럼 선주들의 호응이 저조할 경우

30) 홍태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 풍어제 조사보고서』, 『한국의 마을신앙:현장조사 보고서』 上 (국립민속박물관, 2005), 28~34쪽.

풍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거리가 축소되지만, 영흥 풍어제처럼 주민과 선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풍어와 관련 있는 거리와 재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거리가 확장된다.

VI. 맺음말

연평도 풍어굿은 청배하는 신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당신과 산신을 청배하여 놀리는 전반부와 제신(諸神)을 청배하여 놀리는 중반부, 그리고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후반부로 구성되어있다.

장면화 방식에서 주목할 거리는 ‘당제사’, ‘칠성제석굿’, ‘영산할아밤·영산할맘’, ‘마당굿’이다. 첫째, ‘당제사’는 당맞이를 하기 전 당을 정화시키고 당에 좌정해있는 신에게 굿을 아뢰는 거리로, 당제사의 분석을 통해 사당의 동쪽에는 제석신과 소당애기, 서쪽에는 용왕신, 중앙에는 임경업장군, 그리고 당 밖에는 서낭신이 좌정해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칠성제석굿’에서는 신복을 매개로 ‘제석신→단군, 산신→용왕, 물애기씨→제석신’으로 신격이 변환된다. 셋째, 굿에서 영산을 신으로 청배하여 모시는 것은, 죽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바다에서 ‘어떤 풍랑에도 물에 빠져죽지 않고 살아난’ 그들처럼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영산은 단순히 신으로서 인간을 위해 풍어를 기원하는 것 아니며, 인간에 대한 풍어기원은 아들인 개똥이의 풍요로운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영산이 풍어의 신으로 좌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당위성을 갖는다. 넷째, 잡귀잡신을 풀어먹이는 ‘마당굿’에서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 액자 소설처럼 큰 틀의 만신이 하는 굿 안에 또 하나의 봉사의 굿이 연행되었다.

연평도 풍어굿에서는 (жат은)만세받이와 긴노래의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장면의 확대와 축소를 통해 굿의 현장성을 반영하였다. (жат은)만세받이는 신을 청배할 뿐만 아니라 신의 명칭을 호명하여 거리의 변화를 알려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굿거리의 도입부분에서 불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жат은)만세

받이는 드물게 굿의 중간에서도 불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굿거리 중간에 (갓은)만세받이가 불리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하나의 거리에서 처음에 청배했던 신과 동등한 다른 신격을 새롭게 청배할 때, 여러 거리를 하나의 거리로 압축해서 굿을 진행하여 각각의 거리에 해당하는 신격을 청배할 때, 정성을 들인 특별한 제물을 신에게 드릴 때이다.

긴노래의 주요 기능은 만세받이에서 청배한 신이 잘 좌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행상황에 따라 청배 기능뿐만 아니라 기원과 송신의 기능까지 겸하기도 한다. 연평도 풍어굿을 살펴본 결과, 긴노래의 기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만세받이에서 청배한 신을 다시 호명하여 재차 청배하거나 청배한 신이 좌정했는지 확인한다. 둘째, 만세받이에서 청배했던 신 외의 다른 신을 다시 청배한다. 셋째, 원하는 바를 신에게 기원한다. 넷째, 날만세받이 대신 송신의 기능을 한다.

굿은, 특히 공연이 아닌 현장에서 연행되는 굿은 사회적 변화와 연행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대처 방식은 무당의 연행 능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연행 능력이 뛰어난 무당일수록 장면의 확장과 축소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게 굿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뿐만 아니라 연행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여 굿을 짜나감으로써 굿의 현장성을 담아내려고 한다. 연평도 풍어굿에서 무당은 사회적 변화와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을 장면의 확대와 축소를 통해 굿에 반영하였다. 장면의 확대는 임경업장군에 대한 반복된 언급과 꽃게 풍어의 기원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면의 축소는 풍어 기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금화, 『김금화의 무가집 - 거르나따에 만신 회나백성의 노래』, 문음사, 1995.
- 인천광역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인천광역시, 2007.
- 이경엽, 「영암씻김굿의 구성과 장면화 방식」, 『전남 영암씻김굿』Ⅱ,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 이용식, 「황해도 무악의 역사성」, 『황해도굿의 이해』, 한국무속학회, 2008.
- 홍태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 풍어제 조사보고서」, 『한국의 마을신앙: 현장조사 보고서』上, 국립민속박물관, 2005.
- _____, 「황해도굿의 무가-만세받이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16, 한국무속학회, 2008.

Composition and Mise-en-scene Style of Pungeogut of Yeonpyeong Island

Eun Sun Han*

Yeonpyeongdo Island was famous for catching croaker until the early 1970s. However, croaker catching stopped in the open seas of Yeonpyeong as the fishing restriction line has moved south and croaker has been fishing in wintering ground as the enlarging of ships. The village ritual also weakened as croaker catching, the economic foundation of the village, stopped. In the open seas of Yeonpyeong, crab catching replaced croaker fishing from the late 1970s, and the good catch of crabs in 2008 resumed the village ritual. This study analyzes Pungeogut of Yeonpyeongdo Island, which was performed by Geum Hwa Kim in 2008, by scene to find the fragments of Daedonggut that was performed in Yeonpyeongdo Island in the past.

Pungeogut of Yeonpyeongdo Island consists of the first part that calls the shrine god and the mountain god, the middle part that calls the servants, and the final part that releases the miscellaneous ghosts and god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cenes from Pungeogut, it was found that the function of (Jajeun) Mansebaji Song and Ginnorae expanded in Pyeongeogut of Yeonpyeongdo Island. (Jajeun) Mansebaji is mostly sung at the start of Gutgeori, but Pyeongeogut of Yeonpyeongdo Island showed that (Jajeun) Mansebaji is rarely sung in the middle of the ritual. Also, Ginnorae, which is sung to see of the gods called by Mansebaji have been seated, was sung

* HK Research Center, Mokpo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Publication Culture

not only to call the gods, but also to pray for them and send them off.

The shaman who performs the ritual flexibly adjusts the ritual by expanding and shrinking the scenes to fit the circumstances. Not only that, he/she actively responds to the changes to the circumstances to compose the ritual to perform the ritual right at the spot. In Pungeogut of Yeonpyeongdo Island, the shaman mirrored the social changes and the reactions of participating citizens by expanding and shrinking the scenes. The expansion of the scenes could be seen in the repeated mentioning of General Kyung Up Lim and the prayers for the good harvest of crabs, whereas the shrinking of the scenes could be seen in the distance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rayers for the good harvest.

Keywords : Pungeogut, Yeonpyeongdo Island, Village Ritual, Mise-en-scene Style, Ginnorae, Mansebaji

*이 논문은 2013년 7월 12일 투고되어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3년 8월 6일 심사가 완료되고

2013년 8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임